

요즘 청계천 복원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필자가 처음으로 청계천과 인연을 맺은 것은 사업에 실패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서울로 향했던 32년 전의 일이다. 어머니는 새벽에 청계천으로 일을 나가셨고 필자는 어머니로부터 '전태일' 소식 등 청계천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며 세상의 궁금증을 풀기도 했다. 우리 3남매는 청계천주변에서 거두어들이는 어머니의 잉여생산물로 성장했으니 가히 청계천은 필자가 성장한 거름이었던 것이다.

필자는 서울시의 부탁으로 청계천 시민투어 안내를 20여회 진행했다. 두 시간정도 어둡고 암모니아냄새 가득한 지하에서 광통교와 수표교 터를 확인한 시민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생애적, 구조적으로 청계천복원에 찬성을 보내지만 심도 깊은 장기계획 없는 서울시의 믿어볼이기에 걱정이 많았다.

일제 초(1910년대)까지 개천(開川)으로 불렸던 청계천에는 조선 최초의 석교인 광통교 등 20여개의 다리가 세워졌다. 도성 86개의 다리 중 20여개가 개천에 있었으니 개천의 중요도를 알 수 있다. 조선 때는 도성문화의 중심지로 답교놀이, 편자춤, 연등행사, 연날리기 등이 행해졌고, 서민과 거지들의 생활터전이었던 청계천을 단지 더럽다는 이유로 박 정권은 44년 전 환



불자 세상보기

황 평 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보물창고’ 청계천

경에 대한 고민 없이 청계천을 복개했다. 우리나라 행정이 5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복원을 위한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오랜 세월을 간직한 역사의 현장을 시장 임기가 만료되는 2년 6개월 만에 복원하겠다는 생각을 밝혀 세만급이나 시화호 같은 사례를 다시 낳을까 우려된다.

현재 청계천에서는 역사를 증명하는 조선시대 석재와 유구가 발굴되고 있다. 청계천 퇴적물

은 600여년 인간의 희로애락을 간직한 문화인류학적 보고이기에 당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묻혀진 역사를 찾아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이처럼 중요한 역사 복원을 2년 6개월 만에 끝내겠다는 서울시의 의도에 대해 이를 차기 대신에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소문이 일고 있다. 서울시 곳곳에 걸려있는 '역사와 문화복원-청계천 복원사업' 현수막과는 달리 역사문화복원이라는 허위의 논리로 가득 찬 정치경제적 세력들의 자기 살기식 청계천 복원은 중단되어야 한다. 청

계천 복원이 개인의 이익, 선거에 이용되는 것은 곤란하다. 서울시는 철거와 가계의 의견 수렴, 역사 문화 복원 원칙 수립을 충실히 하고, 차기 시장에게 복원을 맡겨야 한다.

사실 필자는 청계천 복원과 함께 일제 강점기부터 훼손되기 시작한 서울 도심도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도성을 따라가면 문화예술의 거리 낙산(대학로)과 옛 난전이 세계적 시장으로 변모한 이현(동대문 시장), 생활문화·체육공간인 장충체육관·장충단 공원·국립극장이 있다. 그 옆으로 돌아가면 남산과 철매(남대문 시장), 근·현대 역사 현장인 정동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존재하는 도성의 흔적을 느끼고나마 복원하고, 지역의 장점을 특화하면 거대도시 서울은 600년 고도의 명분을 되찾을 수 있다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청계천 복원, 긴 호흡으로 진행하자. 청계천 복원은 생태학적, 환경적, 구조·안전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서울의 역사와 문화유산 복원·활용을 염두에 두면서 600년 도시형성의 맥락과 연계된 긴 호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문화재청이 차관급 기구로 격상되었다. 1945년 11월 이왕직으로부터 인수 받아 '구황실사무청'으로 발족한 문화재청은 벌써 60년의 역사가 접어들고 있다. 1961년에는 '문화재관리국'으로 이름이 바뀐 뒤 여러 차례 개편과 신설을 통해 1999년 5월에 1급 기구인 문화재청으로 승격되고, 드디어 2004년 3월 2일 차관급청이 된 것이다. 앞으로 언젠가는 장관급의 기구로 올라갈 것이 분명하다.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문화재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의 역사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차관급청에 안착한 문화재청은 머지않아 그에 걸맞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의 역량을 보면, 시대 요구에 부응하여 조직과 기능이 점차 세분되는 추세이다. 1983년 재산관리과·공원관리과·문화재보수과로 시작된 조직은 현재 3국 12과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불교문화재과 신설 안 되나?

앞으로 조직개편 시 불교계에서 바라는 것은 '불교문화재과'의 신설이다. 불교문화재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60% 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인 가치는 수량으로 측량할 길이 없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재를 사찰에 의존하여 관리한다면, 그 문화재의 관리와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찰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불교문화재는 국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바로 문화재청이 이 임무를 맡아야 한다. 지금도 공평을 관리하는 공원문화재과가 있다. 문화재청이 애초에 이왕직에서 시작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 과의 존재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교문화재의 비중과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공평 문화재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문화재청에서는 앞으로 불교문화재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를 바란다. 만일 불교문화재과라는 명칭이 종교 간의 갈등을 야기한다면, '종교문화재과'라는 명칭도 고려해 볼 만 하다.

■ 정병모(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가난 예찬

흰 구름 사느라 맑은 바람 다 팔았더니 온 집안이 텅 비어 버 속까지 가난일세. 머물던 곳 한 칸 떠돌이이며, 지금은 떠나가야 할 때 꺼지지 않는 불길 속 그대에게 말기네.

(석옥 스님의 열반계)

중국 원나라의 석옥 선사가 원적을 앞두고 고려의 제자 백운 화상에 편지글로 남긴 열반계다. 맑은 바람을 팔아 흰 구름을 사고 흰 구름을 팔아 맑은 바람을 사는 '거래'는 어떤 것일까? 인간 세상의 번잡스러운 인연을 초탈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는 거래일 것이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다. 입으로 어려운 경제를 걱정하고 몸으로 위축된 시장경제를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적 공황까지 느껴지는 그런 불행이다. 이런 시절에도 정치인들의 뇌물 수수와 관련된 이전투구는 그치지 않고 있다.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향해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한 돈'을 둘러싼 잡음도 그 양상과 강도를 확대해갈 것이다.

서민들 살림살이의 가난은 대책이 없고, 위정자들은 '말로만' 가난한 현실. 이 땅에서 오직 국가변명과 민생만 생각하는 정치인, 건곤한 기업정신을 가진 경영인, 양심적인 상도를 지닌 상인,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는 공무원을 기대하는 것은 정녕 어리석은 것인가?

이럴 때 입수룩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한다. 그들은 이웃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에 맑은 바람을 팔아 흰 구름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참 모습을 바르게 깨우쳐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못하여, 이 세상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길 속'이다.

■ 임연태 (편자부장)

이렇게 생각한다

조계종 제162회 중앙총회에 드리는 글

스님, 꽃샘추위가 제법입니다. 한국불교와 종단의 앞날을 속이하는 중앙총회가 이 봄에 열리니 남다른 기대와 희망을 품어봅니다. 특히 전국신도회와의 통합을 눈앞에 둔 중앙신도회가 비로소 온전한 모습으로 불자와 세상을 향하여 포부를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실무일선에서 일하는 저로서도 기대감과 사명감에 가슴이 벅차옵니다.

두 신도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통합할 신도회의 명칭 문제입니다. 지난해 3월 20일 두 단체 회장단은 총무원장 스님의 증명 하에 통합을 합의하면서 "통합신도회의 명칭을 전국신도회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중앙신도회는 종원기구로서 종원 제112조 2항에는 "중앙에는 총무원장 관할하에 중앙신도회를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에 따라 전국신도회로 개칭하든가 아니면 종원에 따라 중앙신도회로 결정하든가 하는 가부의 판단을 이번 중앙총회에서 내려주셔야 신도회 통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두 단체 임원들

이 참가하는 신도회 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중앙총회의 판단에 따르되, 신도관련 법등 개정할 사항들은 통합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논의된 바 있습니다. 사실 신도회 통합의 가장 큰 목적은 한국불교 신도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신도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신도대중에게 통합신도회는 희망과 발전을 제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도회 통합관련 법개정 꼭 돼야 각종 재가단체 활동에도 관심을...

이번 총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4월 통합대회를 거쳐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신도회도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스님,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1700년 한국불교를 기념할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의 1차 불사가 마무리되어 성역화불사모연위원회에 참가한 저로서도 기쁜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 구석은 쓸쓸하긴 합니다. 기념관과 성역화 불사의 그 어느 언저리에도 재가자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턱없는 박봉에도 불구하고 포교일선에서 땀 흘려 일하는 불교활동가들에게 사무실 임대료 걱정을 털어줄 수는 없나요?

미레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는 며칠 있으면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또 짐을 싸야 합니다. 새 학기 포교에 전념해야 할 때, 그들은 또다시 여기저기로 사무실을 구하려 다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 파라미타청소년회 등 단체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개신교는 도시신학교다, 기독교농민회다 하며 민주화·민중운동의 울타리가 되어 오늘의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지인권이러는 이틈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나 조계종 어디에서도 그런 포용과 배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승가가 사부대중으로 이뤄진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무색하기만 합니다.

조계종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참여의 리더십, 생생한 의사소통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단을 구성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계종으로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근(조계종 중앙신도회 총무부장)

'연대' 민명 심민섭



덕으로 있는 윤달 '自利利他' 로

한글에너지 전문점 및 사원모집

한글에너지를 만난 당신은 건강의 역사가 새로 시작된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한 차원 높게 생각하면 살충제, 중금속 등 유해성분과 공해로 인한 유해공간에서 간단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등산 낚시 등 야외, 가정에서 영원히 휴대해야 할 현대인의 필수품, 가정에서 살충제 해방!! 간편하게 카드 한장으로 받내세 제거, 벌레퇴치

- 21C 새로운 에너지
 - color neutralize wave(중화파장)
 - color dry wave(건조파장)
- 수맥방어, 혈압, 혈당, 체중조절

소자본 무점포 사업자 환영(매일11시, 14시 사업설명) 주부사원, 공사직 퇴직자 환영 기본급 + 수당

약국, 미용실, 피부관리실, 24시 매점, 화장품코너, 지오폐, 문방구, 식당, 카페, 호텔매점, 등 특약점 모집
공해로 긴장된 공기인자를 부드럽게.....
음식영양성분(임차)중금속 - 유해파장 중화, 수맥파장방어 락벽지, 인테리어용품

●위치 : 신설동 전철역 1,2번 출구 수도학원앞 수성빌딩 4층
지방은 전화를 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특약점 및 사원모집 상담 02)924-5380, 924-5382**



(반 냄새 제거 카드)
(곤충퇴치, 수맥방어)
의장등록: 30-2003-15116

한글음파 대체의학 전수자 모집

인민족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책자 - "한글은 하늘소리 불치는 없다"

이름만 들어도 병을 걸걸할 수 있는... 한글음파 대체의학, 한글음파 성명의학, 혈당, 혈압조절, 탈모, 피부 아토피성, 환경개선

아~ 내 이름이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다니...

공개강좌 매일 오전 11시
제 3기 전수자 및 전국 지회 수련원장 모집

전국 시도 총판모집 한글에너지 본사 상담 02)927-3372

편수내용

한글 기초에너지, 한글음파 성명의학, 한글음파 대체의학, 한글 성명학, 한글 짜음과 모음을 연구한 이름소리의 비밀!!

●위치 : 신설동 전철역 1,2번 출구 수도학원앞 수성빌딩 3층



저자 황성현 전장
Color wave 개발자

한글에너지 대한은공연구회 www.smile77.wo.to 상담 02)927-3372~3

우리 가족에겐 名品이 있다!

20여년을 오직 한 길로만 걸어온 **성광수의 수신토종오가피!**



국회대외경제사 성광수

- *국내 최대 규모 오가피 농장
-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선정
- *오가피 관련특허 보유기업(제0322351호)
-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먹은 그 제품
- *오가피전문연구소 개설(제20031860호)
-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사업참여 기업

점점 추워지는 겨울! **챙기셨습니까?**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세요.

햇오가피를 수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겨울 수확하는 햇오가피로 만들어 더욱 새로워진 수신토종오가피!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건강상담 **02)2201-2333**
무료 자료신청